

유비쿼터스 공간 서비스 구축에 대한 기독교적 제안

권오병(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입주 기업 혹은 주민들의 효율을 극대화되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도시(U-City)에 대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U-City는 유비쿼터스 공간 시스템 서비스의 통합된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유비쿼터스 공간에는 가상공간과 함께 기존의 물리적 공간인 공항, 학교, 병원, 사무실, 자동차 등이 있을 뿐더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물리-가상 융합 공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신공간은 전통적인 도시 개발 혹은 건축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U-City 구축은 단순히 도시 개발의 영역만이 아니라 기술, 철학, 비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U-City 구축 과제의 철학과 비전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U-City를 기독교의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삼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U-City의 요건이 되는 특성 및 구축 철학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 그룹이 선호하는 U-City의 모습과 아울러 일반 사용자 그룹을 선도할 그룹의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 제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준비가 미흡하다. 더욱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U-City 서비스 제안이나 청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U-City 구축 사례

많은 U-City 구축 프로젝트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 표1과 같다.

프로젝트명	도시	국가
Digital Media City (DMC)	서울	대한민국
Arabianranta verkkolehti (Helsinki Virtual Village)	헬싱키	핀란드
Crossroads Copenhagen: The intelligent city district	코펜하겐	덴마크
Digital Mile	자라고자	스페인
One-North	싱가포르	싱가포르
Sapiens Park	플로리아노폴리스	브라질

North Ireland Science Park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Ray and Maria Stata Center	보스톤	미국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	뉴욕	미국
Mission Bay	샌프란시스코	미국
Multimedia Super Corridor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Cyberport Hong Kong	홍콩	중국
Taiwan Hsinchu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대만	대만
Tokyo Teleport Town	도쿄	일본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문헌 조사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특성을 인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단 공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항목을 작성하였다. 첫 번째로, 2001년 조선일보에서 창간특집으로 연재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제목의 기사에서 살기 좋은 도시특성을 발췌하였다. 두 번째로, 2005년 대학내일에서 전세계 10개 도시에서 진행 중인 유비쿼터스 프로젝트를 연재한 기사에서 각 도시에서 향후 미래에 추구하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 발췌하였다. 이러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145개의 도시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과 도시특성에서 크게 벗어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93개의 설문항목을 작성했다. 93개의 설문항목과 함께 11개의 개선할 서비스 항목을 응답자의 주관에 따른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다.

일반인 대상 CSF 분석

설문조사는 2005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국내의 금융업, 중공업, 광고업 등에 종사하는 성인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 가운데 남자는 47.1%, 여자는 50.8%이고, 연령은 20대가 39.9%, 30대가 31.5%, 40대 이상이 26.1%이다. 설문 대상지역은 서울/경기 지역의 수도권과 경남 창원, 진해 등의 기타지역을 포함했다.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64부를 회수하여 80%의 응답률을 보였다.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획일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사에 사용했다. 위의 응답자들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하여 93개 항목 중에서 상위 20개 항목 (약20%)을 CSF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예상대로 웰빙과 관련된 자연친화, 쾌적성,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U-City 프로젝트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인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이나 명예심 등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욕구도 그에 못지않게 상위 20개의 주요성공요인 안에 다수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은 일반 사용자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정도에 비하여 현재 U-City에서 더 많이 강조되는 욕구들이며, 문화성, 성장성, 관계성, 명예성은 일반 사용자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정도에 비하여 현재 U-City 프로젝트들이 간과하고 있는 욕구들이었다. 따라서 향후의 유비쿼터스 공간 구축은 관계욕구와 성장욕구에서

언급하는 관계성, 명예성, 문화성 및 성장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될 유비쿼터스 공간 서비스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즉, 신규 유비쿼터스 공간 서비스를 고려할 경우에는 동기요인에 해당되는 요인들, 예를 들면 명예, 자존감, 정직, 공평, 성취감, 행복 등의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안 가능한 U-City

일반인들의 CSF응답 결과를 참조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안 가능한 유비쿼터스 공간 서비스는 물질적 부요만이 아닌 영적 부요를 강조하고, 공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전제로 한 자존감을 고취하고, 땅을 경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연과 인간성을 보존하며, 본격적인 도시 선교를 전개하고, 교회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이다.

결론

199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가 인터넷 기술에 대하여 가졌던 소극적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 사회 혹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면 아직은 생소해 하면서 근거가 희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 기술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나름대로 경각심을 일깨워 나가면서도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기술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도 그 부정적 효과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 내에서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 밖에서의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 직장, 혹은 가정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해 줌으로써, 담대하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며 현장 속의 셀 모임을 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